

이 재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새의 이미지를 통한 자아의
심상표현 연구

- 염색 작품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과

이 주 연

새의 이미지를 통한 자아의
심상표현 연구

- 염색 작품을 중심으로 -

이 재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과

이 주 연

인 준 서

이주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자연은 인간에게 동경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은 필연적인 관계이며 조형 표현에 무한한 소재와 의욕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자연은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은 자연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욕구와 산업화된 현대문명의 기계화 되어가는 혼란 속에서도 주위환경이 예술가로 하여금 자연을 소재로 하여 형상화 하고 표현하게 한다.

오늘날의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도시 환경 속에서 자연의 훈훈한 흠빛이나 싱그러운 햇살은 죽음을 상징하는 듯한 회색의 시멘트 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녹지대의 초목도 본래 녹색의 윤기를 잃고 오염된 공기에 시달리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의 색과 따뜻한 광채는 이러한 현대의 생활공간에 생명력 있는 환경을 가꾸어 줄 수 있는 삶의 희망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새와 산을 소재로 선정하여 표현대상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그 이미지를 새로운 시각적 표현수단으로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새의 이미지를 통한 자아의 심상표현 연구”라는 주제로 하여 새를 산이라는 자연의 공간 안에서 조형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새에서 느껴지는 상징적 의미와 형태의 아름다움을 서정적이며 생명감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살아있는 생명체는 인간과의 화합과 공존을 통해 조화를 이룬다. 자연의 모습을 변형 및 구성, 재조합을 통하여 자아의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본론	4
1. 새와 산의 이미지	4
2. 이론적 배경	5
1) 새의 형태적 특징	5
2) 새의 조형적 표현	6
3) 산의 형태적 특징	8
4) 산의 조형적 표현	9
3. 작품 제작 및 분석	11
III. 결론	35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The song of nature, 견섬유(silk), 산성염료, 85×128, 2004	15
【작품 2】 Autumn, 견섬유(silk), 산성염료, 84×122, 2005	18
【작품 3】 The land of dreams	20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안료수지염료, 95×162, 2005	
【작품 4】 A bird sings	23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안료수지염료, 98×165, 2005	
【작품 5】 Nostalgia	26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450×191, 2005	
【작품 6】 Return to nature I	28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70×194, 2005	
【작품 7】 Return to nature II	29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70×194, 2005	
【작품 8】 Return to nature III	30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70×194, 2005	
【작품 9】 In that place	33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91×193, 2005	

도판 목차

<도판 1> 정선, 「인왕제색도」, 수묵화, 138.2x79.2cm, 15세기경

<도판 2> 폴 세잔, 「생트 빅트와르 산」, 캔버스, 유채, 54x65cm, 1888

<도판 3> 산의 이미지

<도판 4> 새의 형상

<도판 5> 칸딘스키, 「컴포지션 vii」, 캔버스, 유채, 1135x757cm, 1913

I. 서론

1. 연구목적

자연이라는 대상은 인간에게 많은 관심과 상상의 원천이 되어 왔다. 이는 자연이 인간에게 생활의 터전을 주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무한한 대상을 제시 하는데 있다. 인간의 생은 본래의 터전이 자연이요, 이렇기에 인간의 생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한 인간의 미의식 내지 예술 활동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¹⁾

인간은 예술이란 형식을 빌어 자연을 대상으로 미를 발견하고 또한 자연 체험에서 얻은 이미지를 주관적 형태로서 조형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연의 섭리에서 얻은 질서와 공유를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통하여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현대 물질문명 속에서 상실되어 가는 인간의 감성을 새와 산이라는 대상으로부터 표출해낸 형태를 통해 자연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생활 속에 접목하고자 하였다.

새와 산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질서를 찾아내어 미적 표현의 가능성과 공간적 조형의 미를 연구하고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섬유미술의 조형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인은 인간의 새에 대한 동경과 새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삶으로부터의 자유와 자유에 대한 소망, 이상에 대한 동경의 심상들을

1)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p.8

새의 정적, 동적인 형태 표현과 절제된 선과 면으로 형상화 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을 삼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자연을 모티브로 출발하는 본인의 작업은 자연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와 자연물 중 “새”라는 형상을 서정적 감성에 의한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이론적 측면으로 먼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새와 산의 조형성에 대해서 국내 외 문헌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방법적 측면에서는 자연의 형상 중에서 새와 산을 복합적으로 조형화 시켜 현대감각에 맞게 재구성하고 화면에서 느껴지는 색채와 공간감의 구성, 형상의 표현수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산의 웅장함은 다양한 면의 분할로 표현하였으며 새의 움직임은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사실적 형태의 설명적인 재현보다는 본인의 심리적 이미지의 형상화에 주안점을 두어 정적이거나 동적인 형태에서 오는 의미와 자연에 회귀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욕구를 작품에 형상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작품 기법으로는 납방염을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기법은 표현이 자연스러우면서 새의 조형적 특성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며, 단계적인 방염과 염색에 의한 색의 농담변화로 입체적인 산의 형태와 확장된 공간감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색채에 있어서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명성을 표현하고자 채도가

높은 이미지의 색상을 사용하여 자연을 열망하는 욕구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실크스크린(silk screen) 기법 및 분사 기법을 이용하여 염색미술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새와 산의 이미지

자연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술가들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자연은 모든 예술의 근원이며 그 자체로써 완벽하며 아름답고 무한한 신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미지와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예술”이라는 단어를 떠나서는 어느 곳에서도 뜻을 표현할 수 없기에 예술과 자연과 우리 생활은 함께 입을 느낄 수 있다.

자연의 미를* 콜링우드 (R.G.Collingwood)는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인간의 본연과는 대조적인 순수한 자연 본연의 미이다. 둘째, 인간의 의지에 따라 자연의 미에 인간의 감정을 첨가하여 생기는 미이다. 셋째, 모든 인간 활동이 낳는 안위성을 거부하지 않는 제 3의 자연미이다.

이와 같은 자연의 미는 인간의 미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는 의미에서 또는 정신을 함양시키는 의미에서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예술 의욕에 의해서 예술적으로 형상화 하는 예술미를 형성한다. 대자연의 미는 예술의 미를 낳게 하는 모태이기도 하다.²⁾ 이렇게 위대한 자연의 대상 중에서도 새와 산이 주는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하여 새와 산의 생태와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이은정, 『자연이미지연출방법을 적용한 실내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1996, p.7

* 콜링우드(R.G.Collingwood) 1889~1943, 역사학자, 역사철학자, 형이상학자로 유명하다.

2. 이론적 배경

1) 새의 형태적 특징

자연의 모든 생물은 각자의 생활양식에 알맞으면서도 아름다운 형태로 발달되어 있다. 새가 자연환경과 인공적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일억오천만 년전 파충류에서 분류된 이래로 다양한 종과 형태로 진화하는 과정 중 형성되었다.³⁾

척추동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새는 특정 조류를 제외하곤 인간과 마찬가지로 낮 동물이며, 친근한 색(色)과 음(音)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인간과의 교섭이 오래되었고 긴밀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⁴⁾ 창공을 날수 있는 새의 모습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도 새에게서 더 강한 심미적 정서를 느낄 수 있다.

하늘을 날기 위한 가벼운 깃털과 유연한 날개,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부리, 꼬리와 다리 등 각 부분들은 필요에 의한 것이면서도 아름답고 유연한 선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새의 형태를 크게 나누면 부리, 머리, 목, 몸, 꼬리, 날개, 다리로 구분되는데 그 형태들은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부리는 피부가 딱딱한 조직으로 변화되고 인간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물체를 집는 등 모든 일에 쓰인다. 몸은 날기 쉽게 가벼워야 하므로 뼈는 속이 텅 비어서 공기로 가득 차 있고, 넓은 면의 뼈는 단단하고도 얇은 판으로 되어있다. 꼬리의 기능은 방향을 바꾸는데 쓰이며 앉아 있을 때에는 몸의 균형을 잡는데 쓰인다. 새의 다리는 각기 다른 생활환경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발달되어있다.

3) 『Time Life Book-조류』,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북스, 2000, p.11

4) 장강재, 『조류-Life Nature Library』, 서울 한국일보사 출판국, 2004, p.7

이와 같이 새의 몸의 구조는 작은 새부터 큰새에 이르기 까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새의 외형적 형태는 머리, 몸, 날개로 구분되며 각 형태의 부분들은 공중을 날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새의 형태적인 특징은 인간에게 심미적인 충동을 주는데, 이성에 잠재되어 있는 욕구의 표출, 현실의 억압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의 비상 등, 어떤 가능성의 모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새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고 순환되며 자연의 환경이나 법칙에 따라 지구 공간 이곳저곳으로 순응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순리 속에서 인간은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2) 새의 조형적 표현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자신의 존재나 감정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러한 욕망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조형표현으로 이루어진다. “예술은 표현이다”란 말처럼 예술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활동이다. 즉, 예술은 대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재현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다시 구성하는 표현인 것이다.⁵⁾ 예술 표현의 중요한 점은 대상물에서 얻은 감흥, 감동과 함께 조형적으로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를 어떤 소재를 통하여 형상화시키는 것이다.

새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징과 상징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그 특징적인 구조를 발견하고 대상물을 어떠한 단순한 형태로 집약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관찰, 조정하여 대상물의 형태를 새롭게 재창조해야 한다.

5) 백기수, 『미의 사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56

새를 형상화 하였다는 것은 감정의 내적요소와 다른 외적요소들이 조화 있게 어울렸다는 것이다. 즉, 자연에서 얻은 지각 체험이 감성과 감각을 통하여 구체적인 형태로 변형되어 다시 우리에게 보여 지는 것이다.

본인이 새를 대상으로 하여 조형적으로 형상화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연에 대한 동경의 이미지이다.

본 연구에서의 새로운 조형세계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은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 내면의 욕구를 본 연구자의 내적 상상력과 의식 속에서의 느낌과 기억을 “새”라는 가시적인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자연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대상의 이미지는 선, 색채, 형태, 명암의 강·약으로 표현되어지며,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의 구성요소 위에 주위를 집중시킬 때 그 부분 요소 자체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의미 있는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조형행위란 어떤 주제가 구체화되면 그 주제를 자신의 조형언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일이며 이러한 형상화는 이미지의 구성요소와 시지각의 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⁶⁾ 이러한 까닭에 예술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다시 구성되어지는 표현인 것이다.

본 연구는 “새”라는 존재가 본인의 내면속에 내재하는 주관적인 체험에 의한 이미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며 새의 정적 혹은 동적인 형태를 절제된 선과 면으로 단순화 하고 변형하여 상징적 의미와 내재되어 있는 심상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에 본인은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의 이미지를 새의 형태를 통하여 부분적인 변형과 단순화시키는 재구성 작업에 의해 상징성을 강조하고, 운동감과 공간감을 전달할 수 있는 선과 면으로 조형 형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새의 형상이

6) E.B.펠드만, 『미술적 구조의 이해』, 김춘일 역, 열화당, 2004, p.11-12

내면세계에 대한 정서와 감성을 이끌면서 인간의 삶을 깊고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데 있다.

3) 산의 형태적 특징

‘산’이라함은 사전적 개념으로 육지의 표면이 주위의 땅보다 훨씬 높이 솟은 부분을 산이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은 인간에게 정서적 활력소 역할을 하면서 인간의 곁에서 예술 속에 표현되는 대상중 하나이다. 이런 산은 여러 형태의 조형미를 가지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하고 있다. 또한, 산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들은 비슷한 듯 보이나 애정, 분노, 그리움 등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의해 느껴지는 감동과 각도에 따라 사뭇 다른 개성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척도와 감정에 따라 본 연구자만의 독창적인 양식으로 산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다음과 같이 산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었다.

땅의 공간은 큰 바다와, 육지로 구분되고 육지에서는 산과 내로 구분된다.

인류는 산과 숲에서 식량을 얻었으며 종교의 대상인 신화의 발생지로 인간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생각하여 신성하게 숭배되어져왔다. 우리 선인들 역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산봉우리를 신성시 여겨왔다. 산의 고도가 높을수록 인간의 접근이 어려우므로 신령함과 신비감을 느끼게 되어 하늘에 가까이 갈수 있는 통로라는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산은 우리나라의 종교관에 있어서 자연조화사상과 자연숭배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산속에 있는 숲, 나무를 단순히 그 자체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신처럼 숭배하고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어왔다. 이는 산신이 있어 인간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며 농사의 풍년, 흉년,

기후까지도 좌우한다고 여겼으며 자식의 유무도 산에서 빌어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작가 정선의 <도판 1> “인왕제색도”같이 표현감에 있어 그 기초를 자연의 법칙에 두고 자연을 스승삼아 자연의 조화를 배우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일치감을 느껴 특히 산수화를 즐겨 그렸다.⁷⁾

산을 대상으로 표현한 서양의 풍경화는 인물의 배경에서 벗어나 독립되는 과정이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에서 나타났다. 19세기가 되어서 확고한 독립적 성격으로 풍경화가 그려지게 된다. <도판 2> 폴 세잔(Paul Cezanne, 1839~1906)의 작품 중 “생트 빅트와르 산”을 보면 산의 표면적 깊이나 형상이 인간이 체험한 형식적인 표현으로 산을 나타내어 보인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산은 자연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이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산은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로 계절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생활 태도와 소박한 철학이 담긴 풍수지리의 기본논리이기도 하다.

산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계와 풍화, 지각운동으로 쉴 사이 없이 변화하고, 그 생명력과 포용력은 미적 대상으로서 충분한 활력소와 소재를 제공하여 예술가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역동적인 모양, 색, 선으로 표현되어진다.

4) 산의 조형적 표현

오늘날 예술은 인간의 정서와 감성을 크게 강조하여 점차 그 이미지로써 형상화 하려는 조형적 활동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인간은 사고의 동물이며 직접, 간접의 경험을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기고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

7) 임이진, 『자연을 소재로 한 현대미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5, p.13

기 때문에 사물을“본다.”는 것은 눈앞의 구체적 대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이나 관념 속에서 떠오른 형상이나 이미지까지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즉, 단순히 사물의 형상만을 보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기억의 흔적들로 이루어진 관념화된 이미지와 연관시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의 일부분으로써 산은 인간의 정서가 가장 깊게 배어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판 3>산을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고 혹은 고요하고 평온함을 느낄 것이다. 또한 전형적인 농촌생활에서 복잡한 도시생활로 생활 패턴의 양식이 바뀌면서 익숙하지 않은 생활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인 소외감, 외로움 등의 정신적 공허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기억과 향수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산의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었다.

8) A.아페, 『미술과 상징』, 이희숙 역, 열화당, 1995, P.47

3. 작품 제작 및 분석

1) 작품제작

칼 융(K. Jung, 1875~1961)은 “예술은 상징이다. 작가가 경험한 것, 지각한 것, 느낀 것, 생각한 것을 상징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본 작품은 “새”라는 가시적인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 내면의 욕구를 연구자의 내적 상상력과 의식 속에서 이상에 대한 동경, 동심의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형 세계로 이끌어 내고자 한다.

작품 제작에서 <도판 4>새의 형태는 조형적으로 단순화 시키는 과정을 거쳤으며 새의 동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자 하였고 정적인 새의 표현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새 이미지 표현 외에 본인의 작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공간감이다. 회화에 있어서 공간은 하나의 물체와 그 물체를 지각하는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여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어지며 무한한 상황에 심리적인 태도와 표현을 가해서 이루어진 시각적 공간은 그것을 한정짓는 선, 형, 색채, 등의 인지 대상이 주어짐으로서 명확하게 표현된다.

또한 이것은 미술영역에 있어서 작품의 균형, 구성, 감성, 역학관계, 시간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색, 빛, 형, 점, 선, 면 등의 요소들의 바탕으로서 무한한 포용력을 지닌다. 때로는 그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어 자체적으로도 조형의 요소가 되기도 하며 시간과의 만남을 이루기도 한다.⁹⁾ 이렇듯 본인이 추구하는 것은 공간감을 통해 깊이 있는 여운과 암시적인 공간을 표현

9) 최병식, 『미술의 이해』,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3, p.59-60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인은 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내면 심상을 표현하기 위해 새의 사실적 묘사 및 일부를 변형, 단순화 시켜 아름다움을 화면 위에 재구성하였으며 확대,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주제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형태가 대상과 주제와의 거리를 지각하는데 효과적이라면 색채는 대상의 표현적 속성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작품에서 조형형식의 감정언어로 인간의 정서적 마음의 상태를 자극하는 상징 언어 역할을 지니고 있다. 폴 세잔(Paul Cezanne, 1839~1906)은 “색채가 풍부할 때 형태도 풍부하게 된다.” 고 말했으며 터치와 색채를 강조하는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색채는 건반이다. 눈은 망치이다. 영혼은 많은 줄을 가진 피아노다. 예술가란 그 건반을 이것저것 두들겨 목적에 부합시켜 사람들의 영혼을 진동시키는 사람이다.”라고 하였으며 <도판5>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색채는 색 자체로서 선이나 형태 등의 조형요소를 대신하고 있으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형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본인은 작품에서 보여지듯 색감은 채도와 명도를 높여 실제보다 한층 밝고, 맑게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자신의 색채이미지가 바로 자신의 미적 감성을 움직이는 힘이며 또한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한다. 이러한 색채 이미지는 그 자체만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해주는데 자연의 이미지를 닮은 색채는 산뜻한 느낌과 그림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 표현을 위한 제작방법으로 Batik을 선택하였다. Batik은 섬유분야 중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대중 생활과 접목시킬 수 있는 친근한 방법이며, 공예분야 중 회화적이면서 색의 표현 또한 자연스러워서 강한 이미지를

10) 정병관 외, 『현대 미술의 동향』, 미진사, 1994, p.64

전달 할 수 있다.

염색할 재료로 동물성 섬유 중 견(silk)직물을 사용하였다. 견직물은 산에 저항력이 강하며 흡수력이 뛰어나고 표면의 부드러운 감촉과 광택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 방법으로는 염색 기법의 여러 가지 방법 중 납방염을 사용하였다. 방염이란, 염색하지 않을 부분에 염료가 침투하여 염색되어지는 것을 막아 가며 원하는 색으로 그림을 그려 조화시키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 왁스류에 의한 방염은 다양한 방염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왁스의 특별한 성질에 의해서 방염이 용이하며,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염료로는 채도가 높아 색상표현이 선명한 산성염료를 택하였다. 산성염료는 물에 잘 용해되며 일광, 다림질, 수세에도 강한 염료이다.

작품 제작에 앞서 염색의 전 처리 과정으로 정련이 있다. 정련은 염색할 천에 묻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중성세제, 무기세제, 알칼리세제 등이 정련제로 쓰이고 있다.

이 방법으로 염색하고자 하는 천 중량의 25-30배가량의 미지근한 물에 세제를 천의 무게의 3%정도를 넣어 30-40분간 담근다. 그 후 천을 여러번 헹구어 건조시킨다. 이렇게 정련된 천은 염색시 불순물들이 염료의 침투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주고 균일한 염색이 되도록 해준다.

그러나,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견(silk)직물은 정련, 표백이 된 후 판매되어지며 직물 제작시 실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해 호(호(糊))를 입힌다. 작품 제작 전 그 호(糊)를 제거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에 30분간 담가 수세, 건조 후 사용한다.

정련된 천을 틀에 팽팽하게 건 다음 밑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파라핀을 이용하여 방염한 후 염액을 칠하며 원하는 농도와 색상을 표현한다.

그 후에 후처리를 하게 된다. 후처리는 염색물에 묻은 납의 양이 많을 때는 먼저 납을 털어서 일부는 제거하고 나머지 납은 오래된 신문지를 작품의 위아래에 놓고 다림질하여 납을 제거한다. 이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하여 납이 충분히 제거되면 작품의 위아래에 오래된 신문지를 놓고 돌돌 말아 증열기에 넣고 100℃이상의 고온에서 1시간 정도 증열 처리한다. 증열 처리 후 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염색물을 휘발유에 넣고 중탕 처리하거나 탈납제에 넣어 납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 후 견뢰도를 높여 주기 위해 염료고착제(물 1ℓ:고착제 5cc)에 약 30분간 담갔다가 꺼내어 수세하여 건조시킨다.

본 연구자는 【작품 3,4,5】에서 실크스크린(silk screen)기법을 사용하였다. 제작 방법은 나타내고자 하는 형태를 트레팔지 위에 먹물로 그려준다. 그 후 샤를 팽팽히 틀에 걸어 감광액을 바른 후 건조시킨다.

건조된 샤위에 트레팔지를 올리고 스크린 판을 밀착시켜 감광 후 수세하여 잉크를 발라 찍는다. 프린팅 할 때는 바인더와 안료를 섞어 색을 만든 후에 천위에 틀을 올려놓고 색을 올려서 스퀴지로 고르게 밀어낸다. 그 후 다림질로 고착시켜야 한다.

2) 작품분석

【작품 1】 The song of nature



전섬유(silk), 산성염료, 85×128, 2004

【작품 1】 The song of nature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 납방염

크기 : 85X128cm

제작년도 : 2004

새장 속의 새가 탈출하여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있다.

광대한 하늘에서 이상을 향해 날개 짓하며 날아오르고 있는 새는 자아의 실현을 꿈꾸고 있다. 화려한 색을 가진 새이지만 날지 못할 때에는 그 빛도 새에게는 소용없는 것이다. 이상을 실현시키고 싶어 하는 그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새의 주변에는 날개 짓의 운동감을 표현하고자 곡선을 따라 분사 기법을 사용하여 울동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본인이 동경하는 자연은 무미건조한 현실 세계보다 넘치는 생명을 머금고 있기에 저 멀리 보이는 산의 이미지를 붉은색(Red)과 노란색(Yellow)를 사용하여 정열적이며 생명을 품고 있는 자연을 상징하고자 하였다.

원은 모든 형태 중에서도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지녔으며 하늘과 생명력, 그리고 신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화면 중앙부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점차 사라지는 원을 넣음으로써 자연의 생명성을 상징함과 동시에 주목성을 갖하고자 하였다.

이상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여주고자 넓은 여백을 보여주었으며 그것은 또한 광대한 하늘을 상징한다.

이제, 생명의 근원인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새는 날개를 편다. 지난

일들은 남겨두고, 희망을 간직하고 날아오른다. 새가 인간 세상의 위를 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날개 짓으로 어디든지 가는 것처럼 나도 역시 새의 눈이 되어 현실 세상을 내려다보게 되는 것이다.

새가 산을 향하여 날아오를 때, 나의 마음에 평화가 온다.

【작품 2】 Autumn



견섬유(silk), 산성염료, 84×122, 2005

【작품 2】 Autumn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 납방염

크기 : 84 X 122cm

제작년도 : 2005

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한한 인간에 비해 시공의 제약을 뛰어 넘는 자유로움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자아를 상징하고 있는 앉아있는 새는 저 멀리 있는 산, 즉 자신이 속해 있던 공간에서 떨어져 나와 돌아가지 못한 채 의미를 잃은 듯 홀로 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이 속하고 있는 곳, 즉 현실세계에서의 소외현상으로 삶에 적응하기 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동양문명의 중요한 철학적 개념인 '자연'의 의미를 현대에 맞게 재조명하였으며, 현실에 정착하여 안정을 취함보다 이상을 추구하여 자유를 꿈꾸는 자아를 표현하였고, 창조적인 것 보다는 일상적이고 도식화 되어버린 현실 세계를 직선을 이용한 화면 분할로 조형화 하였다.

화면 전체적인 색채는 어두운 갈색(Dark brown)과 노란색(Yellow)을 주조로 하여 현실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중앙에 위치되어 있는 원들에 주황색(Orange)과 부분적으로 채도가 높은 붉은색(Red)을 사용하여 희망을 이미지화 하였다.

진정한 휴식의 시간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 시킬 때 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작품 3】 The land of dreams



전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안료수지염료, 95×162, 2005

【작품 3】 The land of dreams

재료 :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안료수지염료

기법 : 납방염, 실크스크린

크기 : 162 X 95cm

제작년도 : 2005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고정된 시각으로 정해져 버린 감성과 사고를 갖게 되었다. 나만의 독특한 생각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생각도 아닌 은연중에 만들어진 고정관념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것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관념적 틀 속에서 한 치의 벗어남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해도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그 틀을 거부하고 싶은 강한 움직임이 있다. 단지 고정된 관념의 틀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 강렬한 움직임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것이다.

본 작품에서 화면의 면 분할을 통하여 현실세계를 묘사하였다.

면 분할을 통한 사각형의 틀은 사회적 관념의 틀을 형상화 한 것이다. 그 사회적 관념의 내용은 구차하고 보잘 것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곳을 떠나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

또 다시 틀에 맞춰지고 그 곳에서의 고정화된 잣대로 평가하고 평가받게 되며 그로 인해 존재 의미마저 잃게 된다. 면 분할 안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 이는 현실공간을 벗어난 내적 심상의 세계를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고정화된 일상을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꿈의 세계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일정한 비례가 아닌 자유로운 분할을 통해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여줌으로써 무한히 확장된 공간을 암시하게 하였다. 또한 깊이감을 주어 내면의 공간을 표현하였다.

자연을 나타내는 이상의 세계를 붉은색(Red)을 주조로 하여 노랑색(Yellow)과 청색(Blue), 녹색(Green), 보라색(Violet)에 이르기까지 채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하여 그 이상이 한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무궁무진한 희망이 있음을 이미지화 하기위하여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자아를 상징하는 새는 흰색(White)을 사용하여 새로운 세계로 날아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의 색으로 자신을 물들이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였다.

중앙에 질서 정연하게 위치한 어두운 초콜릿색(Dark chocolate)의 원은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형식에 얽매어 있지만 신성함과 생명성을 상징하는 고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현실세계에 있지만 이상을 계속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작품 4】 A bird sings



전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안료수지염료, 98×165, 2005

【작품 4】 A bird sings

재료 :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안료수지염료

기법 : 납방염, 실크스크린

크기 : 165 X 98cm

제작년도 : 2005

인간은 현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무한한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이러한 자유로움에 대한 동경의 순간들은 우리들의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자신의 존재 확인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준다.

화면을 분할하고 있는 면들은 자유를 방해하고 구속하려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 넘으려고 노력하는 강한 의지를 갖는 순간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꿈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한다.

새가 재빨리 상승하려는 모습을 현실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재구성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보았다. 어디론가 막 날아오르려는 새의 모습에서 희망을 느끼며,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는 한 무리의 새들은 공간적으로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를 향하여 함께 갈 것임을 알기에 홀로가 아님을 느끼게 해준다.

화면공간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유기적인 선의 흐름은 리듬감을 주며 새의 날개 짓에 힘을 불어 넣으려는 듯 표현하였다.

새의 자유는 곧 나의 자유, 또는 이로 인한 심정의 평온함의 있는 자유인

것이다.

이상세계를 전체적으로 선명함과 함께 산뜻한 느낌이 나도록 녹색(Green)과 붉은색(Red)의 보색을 주로색으로 사용하였으며 자아를 상징하는 새는 【작품 3】에서와 같은 의미로 흰색(White)을 사용하였다.

작품 중앙에 위치한 주황색(Orange)의 원은 【작품 3】에서와 같이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형식에 얽매어 있지만 신성함과 생명성을 상징하는 고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작품 5】 Nostalgia



전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450×191, 2005

【작품 5】 Nostalgia

재료 :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안료수지염료

기법 : 납방염, 실크스크린

크기 : 450 X 191cm

제작년도 : 2005

인간은 대부분 자연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자연을 그리워하고 가까이 하기위해 노력한다.

앉아있는 새와 날고 있는 새는 꿈꾸는 자아와 현실세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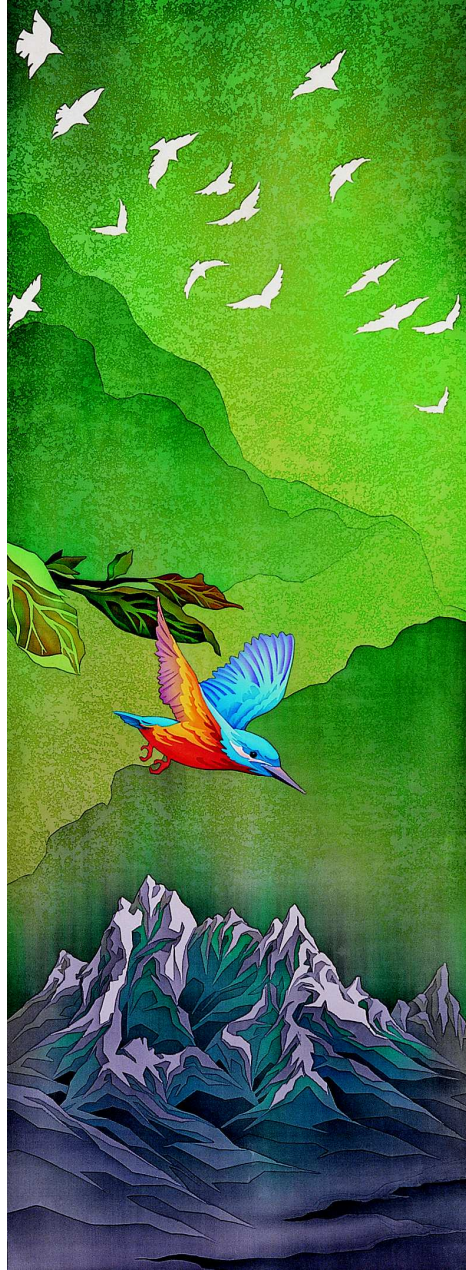
자아를 상징하고 있는 앉아있는 새는 날고 있는 새, 즉 자신이 속해있던 공간에서 떨어져 나와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동경하고 있다.

전체적 화면을 직선으로 구분하여 붉은색(Red)계열과 저채도의 노란색(Yellow)과 회색(Gray)을 사용하여 이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였다. 자연을 나타내는 산의 이미지가 저채도의 느낌이지만 그것은 현실세계의 틀이 벗겨지고 나면 화면의 외곽 부근에서 보이는 생명력 있는 색들이 모든 화면을 구성 할 것이다.

이상세계를 날고 있는 새의 움직임 표현하고자 흰색(White)과 붉은색(Red)로 곡선을 넣어 울동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한 중앙의 원들은 【작품 1】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청록색(Bluish green)으로 표현하여 자연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생명을 상징을 하였다.

【작품 6】 Return to nature I



전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70×194, 2005

【작품 7】 Return to nature II



전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70×194, 2005

【작품 8】 Return to nature III



전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70×194, 2005

【작품 6】 Return to nature I

【작품 7】 Return to nature II

【작품 8】 Return to nature III

재료 :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기법 : 납방염

크기 : 70×194

제작년도 : 2005

자연과 함께한 어린 날들의 기억들은 고향의 품속 같은 편안함을 주며,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존재 확인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교훈을 준다.

기억이나 경험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보다는 개인적 내면세계의 감정인 주관적 이야기로 표현하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따뜻한 햇살을 받아 밤새 굳은 몸을 녹이며 지난 기억을 돌이킨다. 하루 햇살 중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선명할 때인 아침이면 어김없이 맑은 소리를 내며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현재로 투시, 재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넘친다.

새는 자아의 현재와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의 이미지이고, 산은 과거의 기억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한 공간의 이미지이다. 새의 보금자리인 듯한 산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명감과 힘으로서 새를 보호하는 시각적 심리안정과 친근감을 준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동양 사상에서처럼 자아의 내면과 현실은 새와 나무처럼 공존할 때에 완전해진다는 것을 나타냈다.

【작품6,7,8】에서 보듯 잎이 풍성하지 않고 앙상한 가지의 나무의 형태는

자아가 느꼈던 풍요롭지 못한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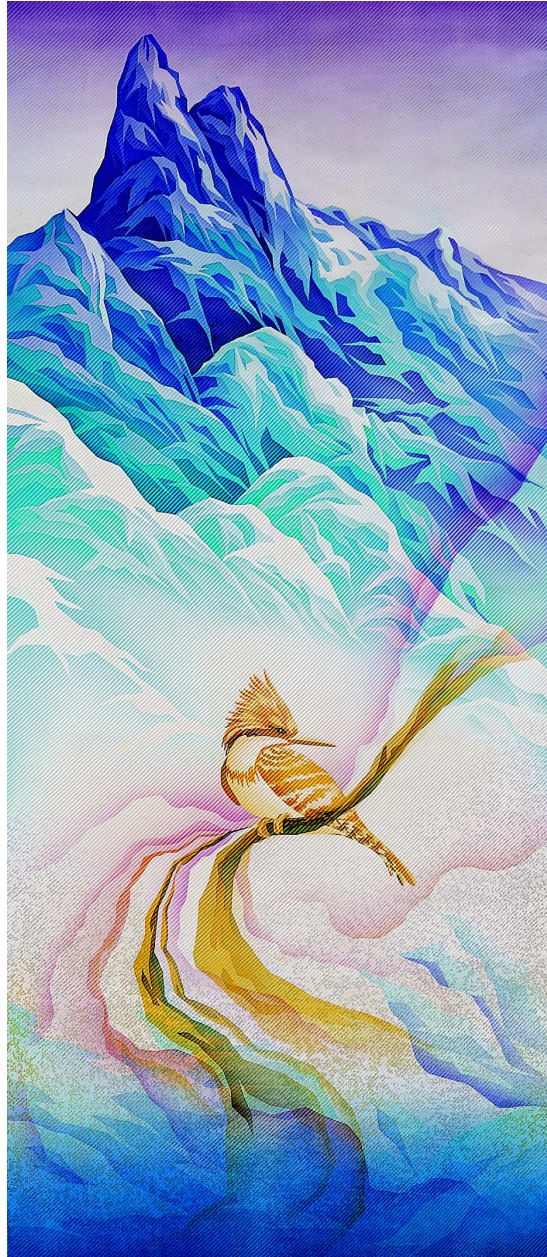
【작품6,7,8】은 시리즈로 제작되었으며 세 작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흰색(White)의 새들을 연결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통일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작품6】에서는 녹색(Green)을 주조색으로 하여 생명을 한껏 품은 자연으로 날아가는 새를 나타내었으며 화려한 보색을 사용하여 내면에서의 희망과 함께 현실 속에서의 희망을 표현했다.

【작품 7】에서는 핑크색(Pink)을 주조색으로 하여 활기를 나타내었으며 이상공간을 향해 바라보는 새는 청색(Blue)을 사용하여 희망을 품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작품 8】에서는 희망을 상징하며 안정을 주는 청색(Blue)을 주조색으로 하였으며 자아를 나타내는 새는 노란색(Yellow)을 사용하여 활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이미지화 하였다.

【작품 9】 In that place



전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91×193, 2005

【작품 9】 In that place

재료 :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

기법 : 납방염

크기 : 91 X 193

제작년도 : 2005

움직이지 않는 새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공간의 한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있다.

새는 지금 가지에 앉아 잠시 멈추어있다.

본인에게 있어 새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은 하늘을 높이 날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날줄 모르는 새는 궁극적으로 이미 새가 아니다. 그러나 새는 날개가 없어도 존재한다. 즉 새가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로 날지 않아도 새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게 된다.

여기에서 새는 날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곧 다음에 날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애타게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을 가지주위에 불규칙적인 선들로 표현하였으며 그것이 설레이고 기대감이 가득 찬 기다림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노란색(yellow)과 핑크색(Pink)으로 표현하였다.

이상세계를 나타내는 산은 희망을 나타내는 색인 청색(Blue)으로 표현하였고, 현실세계의 자아를 나타내는 새는 채도가 높은 노란색(Yellow)과 갈색(Brown)을 사용하여 명시성을 높여주었으며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지화 하였다.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꿈은 무한하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고통과

기쁨의 과정을 겪는다. 그러나 그것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꿈을 이루기보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서도 본성의 깊은 곳에서는 그 꿈이 늘 존재한다. 나는 꿈을 조건 없이 기다린다.

Ⅲ. 결 론

자연은 인간 삶의 본래의 터전이므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의 예술 활동은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은 예술가로 하여금 내면적 감성을 저마다의 독창적인 조형세계로 형상화 시키게 한다.

인간은 삶을 살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창조하려고 한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자연의 관찰은 표현의 대상으로 필연적이다.

자연현상에서부터 이미지 심상세계의 모든 것까지를 조형화 시켜 우리 인간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작가의 표현 세계이다. 이러한 표현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전되어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자라며 외부세계에 적응해 나가는 새의 모습이 인생의 여러 부분과 닮아 있어 그 의미를 일깨워 준다. 현실 속에서 이상추구, 현실세계와 이상의 세계를 넘나들고픈 본 연구자에게 새는 그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표현적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이미지와 형상을 새로운 조형세계로 창조하였다.

새의 이미지에 대한 작업은 새 본래의 형상을 매체로 하는 표현과, 새를 구성하는 선의 흐름과 볼륨을 단순화 시켜 표현을 함으로서 새의 동적인 이미지와 정적인 이미지를 혼합해 움직임과 생명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여백은 잠재된 감성의 표현의 장이며 표현하고자 하는

심리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단순한 공백이 아닌 실체와 조화된 공간으로 나타내었고, 여백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 분할을 의도하였다.

미술이란 물론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로 말이나 글로써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미술작품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의미 중에는 이성적인 설명이 적용될 수 없는 신비스러움을 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실제 작품들을 보고 이해하며 노력하려고 한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창작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와 사회 또는 우리와 다른 사회에서의 타인의 삶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다.

인간은 꿈을 가지고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담함과 자포자기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야 할 작은 희망을 찾는다. 이러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본인의 작품들이 인간 삶의 또 다른 가치를 낳고 재조명하는 역할을 기대해 보며 앞으로 계속적이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로 작품제작에 발전적 창의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참 고 도 판



<도판 1> 정선, 「인왕제색도」,
수묵화, 138.2x79.2cm, 15세기경



<도판 2> 폴 세잔, 「생트 빅트와르 산」,
캔버스, 유채, 54x65cm, 1888



에베레스트산



하롱베이



한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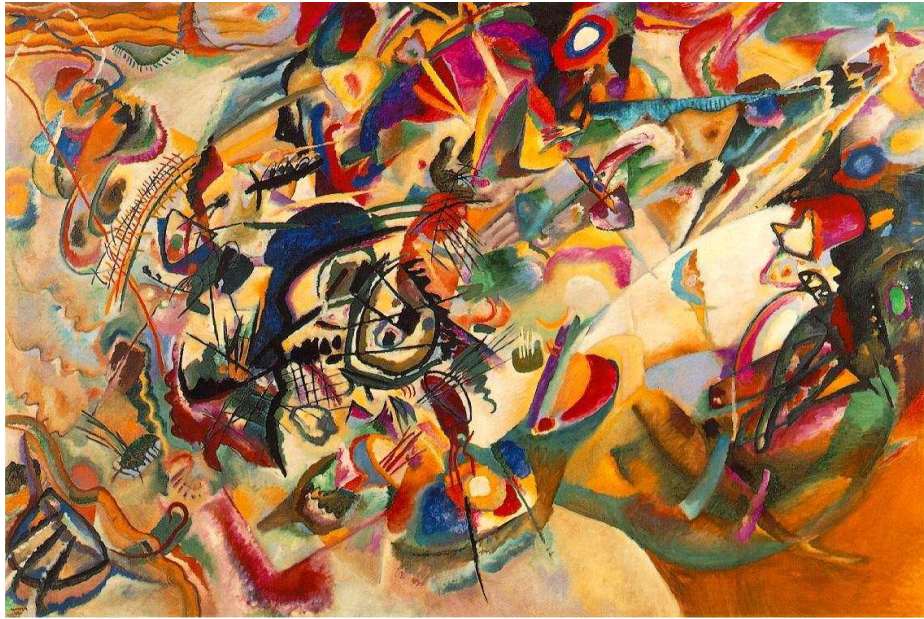


알프스산

<도판 3> 산의 이미지



<도판 4> 새의 형상



<도판 5> 칸딘스키, 「컴포지션 vii」,
캔버스, 유채, 1135x757cm, 1913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수만, 『자연속의 새-Photography』, 도서출판 아카데미서적, 2000
김재선·엄애경·이경 역편, 『한글 동이전』, 서문화사, 1997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백기수, 『미의 사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서재행, 『공예염색기법』, 미진사, 1994
윤무부, 『한국의자연탐험 v.31 까치』, 웅진출판사, 1993
이재선, 『한국의 현대염색』, 미술문화, 2001
장강재, 『조류-Life Nature Library』, 한국일보사 출판국, 2004
정동림, 『섬유 염색』, 교학연구사, 1999
정병관 외, 『현대미술의 동향』, 미진사, 1994
- 마르틴 바른케, 『정치적 풍경』, 노성두 역, 일빛, 1997
A.아페, 『미술과 상징』, 이희숙 역, 열화당, 1995
E.B.펠드만, 『미술적 구조의 이해』, 김춘일 역, 열화당, 2004
『Time Life Book-조류』,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2000

<학위논문>

- 곽임영, 『새를 통한 자아의 심상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02
박명숙, 『새 형상의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1997
양재희, 『숲 이미지의 서정적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1999
임이진, 『자연을 소재로 한 현대자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5

ABSTRACT

**The Mental Picture Expression Research
which leads the Bird Image
- Centering around My Dyed Work -**

**Lee, Joo Yun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Nature has been in correlation with humans and such relationship has been that of aspiration and curiosity. Therefore the inevitability of nature-human relationship has provided us with endless materials and desires of model expression.

Such nature is indivisible from humans and the natural instinct of humans has its origin in nature. Even in the chaos of mechanization of industrialized modern civilization, the desire to live with nature and surrounding environment make artists form and express nature.

Inside scientific and mechanical city environment of these days, warm mud color of nature or bright sunshine are being replaced with gray color of cements, and green trees of greenbelts are losing their original color and are suffering from contaminated air. In such modern environment, by giving color of nature and warm luster, one can give hope of life and make more live environment.

Among many materials in nature, I choose birds and mountains that are most closely related with humans, find characteristics of them and in turn reconstruct that image as a visual expression tool.

Thus, I choose "The Mental Picture Expression Research which leads the Bird Image" as the title, form birds as a model in the nature called mountains, and try to express symbolic meaning and beauty of

birds'shape livel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harmony of nature that is made by combining pure beauty that is not made by humans and life of the object, and to visually express self-image through reappearance, change and composition of the model.